

국 어

1. 다음 중 국립국어원이 권고한 순화(우리말 다듬기) 대상어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혹성 ② 땡깡 ③ 우동 ④ 둔치

2. 문장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중의문(重義文)’이라 한다. 모호성의 이유 즉,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언어 형식에 의한 내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언어 외적인 문제인가에 따라서 중의성을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한 중의성은 다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영향권 중의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 속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의성이며,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의성이다. 그리고 영향권 중의성은 어떤 단어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역(scope)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중의성으로 영향권 중의성 또는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문장 표현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 외적 요소, 즉 발화 장면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의성을 화용적 중의성이라고 한다.

- ① 학생이 모두 오지 않았다.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③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④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3.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에 가장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② 화성에서 식물을 발견할 확률은 1/2이다. 동물을 발견할 확률도 1/2이다. 따라서 화성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1/2 + 1/2 = 1$ 이다.
③ 박인비 선수가 한국 골프 선수로는 네 번째로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 여자는 모두 골프에 소질이 있다.
④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4. 다음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못 고친 것은?

제목: 위탁 교육 운영 계약 및 체결 의뢰
우리청 직원들의 인명구조 능력과 초동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 상반기 각 지방해양경찰청 내 인명구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 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우리청 → 우리 청
② 기여하고자 → 기여하고자
③ 계획인 바 → 계획인바
④ 밝힌 바와 → 밝힌바와

5. 다음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팸플릿(pamphlet) ㉡ 카달로그(catalog)
㉢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 비전(vision)
㉤ 바리케이드(barricade) ㉥ 시뮬레이션(simulation)
㉦ 리더쉽(leadership) ㉧ 앰블런스(ambulance)
㉨ 쉬림프(shrimp) ㉩ 뱃지(badge)

-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6. 다음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간오월이라, 음력 5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이 힘들었지.
② 그 판사의 판결은 언제나 사개가 맞아 원고와 피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③ 그는 엉너리를 치며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④ 그는 오랫동안 만나 온 사람이지만 좀처럼 결을 주지 않았다.

7.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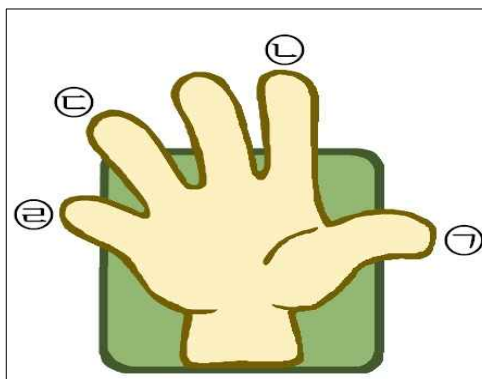
- ㉠ 숫자(數字) ㉡ 갯수(個數) ㉢ 횃수(回數)
㉣ 초점(焦點) ㉤ 댓가(代價) ㉥ 곳간(庫間)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밑줄 친 부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지 못한 것은?

- ① 약을 먹은 효과가 금새(→ 금세)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② 그는 아홉 살 때에서야 한글을 깨이게(→ 깨우치게) 되었다.
- ③ 어제 만난 사람은 나이가 지그시(→ 지긋이) 들어 보인다.
- ④ 소가 파리를 쫓으려고 꼬리를 마구 젓고(→ 젓고) 있었다.

15. ㉠ ~ ㉤을 가리키는 말과 한자어를 가장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 엄지손가락-무지(拇指)

㉡: 집게손가락-식지(食指)

㉢: 약손가락-무명지(無名指)

㉣: 새끼손가락-섬지(纖指)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은 어떤 문인에 대한 평전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문인으로 알맞은 것은?

(㉠)은(는) 시집의 초고를 정리한 다음, 가장 먼저 연희 전문 2년 후배인 정병욱에게 보여 주었다. 작품마다 쓴 낱자를 일일이 밝혀 두었는데, 그 무렵 (㉠)의 생활상을 알고 있던 정병욱은 몽클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꾸준히 시를 써 온 것이 놀라웠고, 새삼 우러르는 마음도 들었다. <자화상>부터 시작해 <소년>과 <눈 오는 지도>로, 그리고 <또 다른 고향>과 <길>, 그리고 마지막 <별 헤는 밤>까지, 시집 전체가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향악 같았다. 읽는 이의 감상 흐름까지 고려해 시집의 목차를 정했는데, 마지막에 놓인 <별 헤는 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향시였다.

- ① 박목월
② 정지용
- ③ 조지훈
④ 윤동주

17.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된서리가 (㉠) 바람에 농작물이 다 얼어 버렸다.
-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돼지를 (㉠) 생계를 유지하셨다.
- 무더운 여름에는 창에 발을 (㉠), 문을 열어 두곤 하였다.

- ① 놓다
② 치다
③ 내리다
④ 기르다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 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 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19. 방송 언어에 대한 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핀란드 투르쿠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지난 3월 투르쿠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 용의자들의 첫 소환 심문이 열렸습니다. → ‘심문’은 수사 기관이나 변호인이 묻는 것이라 ‘신문’이 맞다.
- ② 이번 공연은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DMZ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엠제트’와 ‘디엠지’,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 ③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IT 예산 낭비와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 ‘전철을 밟다’는 보통 좋은 사례일 때 쓰므로 ‘궤적을 보여 줍니다’ 정도로 수정한다.
- ④ 기계 내부가 심하게 녹슨 식기 세척기가 군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내부에서 쥐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 동물에는 ‘시체’가 더 적절하다.

20. <조건>을 반영하여 <기사문>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기사문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을 작성할 것.
- 도치법을 사용할 것.

<기사문>

제8차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위원회에서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채소 절임 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많지만 김장처럼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전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집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풍속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동체적 정체성의 공유라는 상징적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실제로 몸에도 좋다. 일본의 기무치에 비해 유산균 수가 무려 167배 많으며, 최근에는 발효 김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 한겨레신문(2014.1.7.)

- ① 맛의 최고봉, 김치! 드디어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
- ② 인류 무형 유산이 되다! 함께 담그고 나눠 먹는, 몸에 좋은 김치
- ③ 기무치도 제치고, 고혈압도 물리친다! 인류 무형 유산, 김치
- ④ 겨울이 오기 전에 담그는 김치, 겨울이 가기 전에 나누는 김치, 인류의 무형 유산!